Check for update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44 No.3 Serial No.183 2026.9. 33~50

ISSN(print) 2765-1932
https://doi.org/10.7466/JFBL.2026.44.3.33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의 동향

Research Trends in Academic Stres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지다애[1](Daae Ji) https://orcid.org/0009-0007-4902-2330 나승희[2](Seunghee Ra) https://orcid.org/0009-0003-7009-1825
강수정[2](Soojeong Kang) https://orcid.org/0009-0000-3512-8125 박찬수[1](Chansu Park) https://orcid.org/0000-0003-4968-8304
이주연[3*](Joo-Yeon Lee) https://orcid.org/0000-0003-0174-0126

[1]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student
[2]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3]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학업스트레스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문 및 학위논문 총 128편을 대상으로 발표연도, 연구분야, 연구대상, 연구방법 및 연구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연구는 지난 12년간 꾸준히 수행되었으며, 특히 교육 분야의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은 주로 고학년에 집중되었고,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학업스트레스 측정에는 설문지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수정·보완된 척도의 활용이 원척도보다 많았다. 자료의 활용에서는 2차 자료보다 1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많았으며, 연구설계에서는 횡단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종단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연구주제에서는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는 독립변인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졌다. 주요 관련 변인으로 학교적응, 소진, 문제행동, 미디어 중독, 사교육,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부모-자녀관계,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등이 나타났으며, 학업탄력성,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아개념, 그릿 및 자아탄력성 등은 매개 또는 조절변인으로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연구가 관련 변인 간 관계와 작용기제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연구 및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학업스트레스, 초등학생, 연구동향

I. 서론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단순한 학업 부담을 넘어 학교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은 물론,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중요한 발달적 문제로 인식된다(Vanluydt et al., 2026). 즉, 학업스트레스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주요 위험요인(Cheng & Lin, 2023)이자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동욱, 2025). 아동기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현재의 정서적 안녕을 반영(Zhu et al., 2021)할 뿐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발달 지표이다(김영경, 2022). 그러나 국내 아동의 주관적 안녕 수준은 국제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된다. 국제 아동들의 주관적 웰빙을 비교 조사하는 Children's Worlds(ISCWeB) 202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0세 아동이 보고한 주관적 웰빙 점수는 10점 만점에

• 본 논문은 2026 생활과학 공동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 Corresponding Author: Joo-Yeon Lee,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Jeonnam-Gwangju, 61186, Rep. of Korea. Tel: +82-62-530-1327, E-mail: idscot@jnu.ac.kr

[Received] June 17, 2026; [Revised] August 19, 2026; [Accepted] September 17, 2026

8.41점으로 조사 참여국 가운데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Rees et al., 2020).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 실시된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염유식, 성기호, 2021). 특히 202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는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초등학생 가운데 41.5%가 학업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또래관계나 가족관계 문제보다 높은 비율이었다(유민상 외, 2025). 이러한 결과는 한국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학업 관련 경험과 학업스트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령기는 아동이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업과제를 수행하며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자아개념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 학업은 아동에게 문제해결력, 자기조절능력, 책임감 등을 기르도록 발달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학업은 주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Xu et al., 2023). 특히 학업 관련 어려움은 자신감 및 학습동기의 저하와 더불어 우울, 위축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심리사회적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eung et al., 2010). Erikson(1993)은 학령기 아동이 학교와 또래집단 속에서 인지적·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근면성을 발달시키는 반면, 반복적인 실패나 부정적 평가를 경험할 경우 열등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단순한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를 넘어 이후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이해된다.

학업스트레스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되어 왔다. 오미향과 천성문(1994)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주로 학교 공부 및 성적으로 인한 부정적 심리·정서 상태로 설명된다. 한편, 학업 요구와 개인의 대처 능력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학업 요구가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나 대처 능력을 초과한다고 지각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 심리상태로 설명되기도 한다(조은서, 김은영, 2018; Wilks, 2008). 이와 함께 부모·교사·자기 기대 및 사교육이나 성취 압력 등과 같은 학업 관련 환경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제시된다(손승희, 정지나, 2021; 조붕환, 2006). 이처럼 학업스트레스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경험하는 학업 관련 요구가 아동의 심리적 자원이나 대처 능력을 초과한다고 지각될 때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부담을 학업스트레스로 정의하고자 한다.

학업스트레스의 발생과 경험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아동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 사회의 성취 및 경쟁 중심 교육문화, 높은 사교육 참여율, 그리고 학업경쟁의 저연령화 현상은 초등학생이 학업을 조기부터 부담으로 인식하게 하는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의빈 외, 2023).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수업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미디어 기기 사용의 일상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는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한희진, 2023). 이처럼 초등학생을 둘러싼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수행된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학업스트레스의 원인변인과 결과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하게 접근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학업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설명하는 원인변인으로는 사교육 경험(성경환, 유재봉, 202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손승희, 정지나, 2021)과 부모의 학습관여(이뿐새, 2017), 부모 양육태도(조우미, 2017) 등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학업스트레스의 결과변인으로는 학업소진(안종혁, 유미현, 2014),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이동욱, 2025), 미디어 중독(김내영, 2024), 내·외현화 문제행동(조은혜, 2016; 이민희, 2022), 학교적응(한은수, 2022), 공격성(김민주, 이동귀, 2018) 등이 연구되었다. 이와 함께 학업스트레스의 발생 기제를 설명하기 위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행복감·삶의 만족도를 잇는 핵심 매개변인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설정되거나(이의빈 외, 2023), 학교환경과 집행기능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으로 검토되는 연구(임효진, 2022)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아울러 학업적 자아개념(최정은, 김은하, 2019), 자아탄력성(이동욱, 2022; 지명원, 이주연, 2022), 자기효능감(김원주, 2017), 내현적 자기애(민하영, 2016) 등은 학업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연구동향 분석은 특정 연구 분야의 지식 축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주요 연구주제와 방법론의 변화 양상, 향후 연구의 공백과 방향을 확인하고 제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초등학생을 둘러싼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업스트레스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선혜연과 오정희(201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해당 연구

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 61편을 대상으로 연도, 연구분야, 연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을 개인 내 요인과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의 주요 관심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선혜연과 오정희(2014)의 연구는 무엇보다도 최근의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 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기적 한계가 있다. 해당 연구는 2013년까지 발표된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후 약 10년 이상 축적된 연구성과를 포함하지 못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부의 과정 중심 평가 확대(교육부, 2016)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원격수업 경험, 사교육 시장 확대 등의 교육환경 변화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새로운 교육환경에서 이루어진 학업스트레스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연구에서는 원격수업 경험, 디지털 기기 사용, 사교육비 변화 등이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새로운 영향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어(한은수, 2022; 한희진, 2023), 최근 연구를 포함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선혜연과 오정희(2014)는 연구분야를 분석함에 있어, 학제의 성격과 전공영역에 따라 교육학(영재교육연구, 아시아교육연구, 교육학과 등), 상담학(상담학연구, 초등연구, 상담심리전공 등), 아동·가족학(발달장애연구, 아동가족학과 등), 기타(청소년시설환경연구, 간호학과, 복지학과 등)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분야 분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분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동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분류기준에 근거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선혜연과 오정희(2014)는 연구방법 분석에서 학업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사용 빈도를 제시하였으나 측정도구의 활용 양상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자료 수집방법, 연구설계(횡단연구 및 종단연구) 등을 함께 살펴보지 않아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는지 파악하는 데 제한적이었다. 넷째, 기존 연구는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을 개인요인과 환경요인 중심으로 분류하였을 뿐, 연구모형 내에서 각 변인이 수행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즉, 학업스트레스 변인이 개별 연구에서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중 어떠한 역할로 분석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연구모형에서 변인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은 학업스트레스 연구가 어떠한 이론적·경험적 틀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어떤 기제와 보호요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선혜연과 오정희(2014)의 연구 이후 약 10년 이상 축적된 국내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연도별 연구현황, 연구분야,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측정도구의 활용 양상, 관련 변인의 유형과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근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의 전반적인 특성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의 연도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의 연구분야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의 연구대상 학년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의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4-1. 연구의 측정도구의 사용 분포는 어떠한가?

4-2. 연구자료의 수집방법과 연구설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의 연구주제는 어떠한가?

5-1. 학업스트레스는 연구모형에서 어떠한 역할(독립, 종속, 매개, 조절)로 활용되었는가?

5-2. 학업스트레스의 역할에 따라 함께 연구된 관계 변인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본 연구는 선혜연과 오정희(2014)의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동향 분석을 확장한 후속연구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2년간 발표된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국내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논문 선정을 위해 기존 연구동향 분석 논문들(백은라 외, 2023; 조성진, 2025)에서 활용한 4가지의 논문 검색엔진(RISS, KISS, DBPIA, SCHOLAR)을 사용하여, '학업스트레스'와 '초등학생' 및 '아동' 주제어 조합의 검색을 실시하였다. 이 중 결과 내 재검색을 통해 발행년도가 2014년~2025년 사이인 논문

표 1. 1차 스크리닝 과정

1차 스크리닝 선정 절차	선정 기준 및 제외 사유	논문 검색 결과 수(*n*)	
1. 학술지 논문 검색	순서대로 결과 내 재검색(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원문있음, 2014년~2025년, KCI 등재, KCI 우수등재) (n=+241)	DBPIA: 96, KISS: 26, SCHOLAR: 40, RISS: 79	241
2. 학위논문 추가 검색	1단계 분류 기준 기입 후 '국내 석사·박사' 추가 (n=+298)	total(학위)	298
	total(학술지+학위)		539
3. 논문 연구 주제 선별	주제어에 '학업스트레스'가 없는 연구 제외 (학술지 논문: n=-116, 학위논문: n=-219)	DBPIA: 41, KISS: 9, SCHOLAR: 33, RISS: 42	125
		total(학위)	79
	total(학술지+학위)		204
4. 중복검사	DBPIA 기준 중복 논문 제외 (n=-48)	total(학술지)	88
		total(학위)	68
	total(학술지+학위)		156
5. 최종 중복 검사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이 중복될 시 학술지 채택 (n=-7) ‣ 제목정렬 후 저자정렬 시 중복 1건 제외 (n=-1)	148	
	total(학술지+학위)	148	

만을 스크리닝하였고, 학술지의 경우 KCI 등재 및 KCI 우수등재논문에 해당하는 경우만 포함한 결과, 총 148편의 논문이 1차적으로 선별되었다(표 1).

2차 스크리닝 과정에서는 총 148편의 논문 중 20편이 제외되었다. 제외기준은 첫째,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동일 연구가 중복된 경우 학술지 논문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포스터와 학술지 논문이 중복된 경우 학술지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최정은, 김은하, 2019). 둘째,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모두 포함되어 초등학생만의 결과를 분리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제외하였다. 셋째, 원문 확인이 불가능한 논문, 그리고 연구주제가 직접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아닌 기타의 경우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중복 논문 2편(신지연 외, 2016; 최정은, 김은하, 2017), 연구대상이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포함한 경우 9편(김나영, 손윤희, 2019; 김은정, 2018; 김연정, 2018; 김지수, 2020; 채담미, 2019; 성정혜, 허무녕, 2024; 강정애, 2016; 이유미, 2019; 김혜진, 2017), 국외 연구대상 2편(반해륜, 2024; 오립군, 2024), 제목 및 주제어에 '학업스트레스'가 아닌 '학교스트레스', '평가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대처', '소진' 등의 변인을 포함한 경우 4편(정유지 외, 2022; 이승도 외, 2015; 홍예지, 2023; 권다영, 2025), '학업스트레스'가 주된 연구 주제가 아닌 경우 1편(최소연 외, 2021), 원문 제공이 불가한 경우 1편(김모여, 2015), 분석기준 선행연구 1편(선혜연, 오정희, 2014) 등 총 20편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28편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분석기준

본 연구는 2014년 이후 수행된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13년까지의 연구의 동향과 비교하기 위해 선혜연과 오정희(2014)의 분석기준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단, 해당 연구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기준이나 새롭게 추가된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1) 연도별 분포 분석기준

본 연구의 연도별 분포는 2014년 1월부터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매년 발표된 학회지 및 학위논문의 빈도수를 산출하였다. 2026년의 경우 연구 수행 시점에 해당 연도가 종료되지 않아 해당 연도의 연구물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동향의 범위를 2025년 12월까지로 제한하였다.

2) 연구분야 분석기준

연구분야 분석 시 학술지 논문의 경우 연구분야 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술지명을 기준으로 네이버 학술정보의 주제분류를 참고하였다. 학술지명으로 네이버 학술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KOAJ의 연구분야 분류를 활용하였다(지명원, 이주연, 2022). 이를 통해 학제의 성격과 전공영역을 기준으로 교육학(초등상담교육, 부모교육연구, 육아정책연구 등), 상담학(상담심리, 초등학교상담, 심리치료 등), 아동·가족학(청소년학, 한국생애놀이치료학회지, 아동과 권리 등), 기타(사회복지학, 간호학, 한국게임학회 등)로 구분하였다.

학위논문의 연구분야는 세부 전공 및 학과명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세부전공명에 '교육'이 포함된 경우 교육학 분야로 분류하였고, '상담', '심리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등 상담 및 상담심리 분야와 관련된 명칭은 상담학 분야로 분류하였다. 반면 '교육'과 '상담'이 모두 포함된 경우(구은실, 2020)는 교육학 분야로 분류하였다.

3) 연구대상 분석기준

연구대상의 학년은 선혜연과 오정희(2014)가 제시한 학년인 단일학년과 학년혼재의 두 가지로 먼저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단일학년은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학년혼재는 3~6학년, 4~6학년, 5~6학년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아동패널자료를 사용한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은 해당 패널의 조사 차수와 조사 당시 학년 정보를 확인하여 분류하였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로 분류하였다.

4) 측정도구 분석기준

선혜연과 오정희(2014)의 연구 대비 학업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변화 양상을 비교·파악하기 위해 척도별 사용 빈도와 개발 여부를 분석하였다. 선혜연과 오정희(2014)의 기준에 따라 원척도와 수정·보완 척도로 구분하였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척도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거나 원척도를 수정·재구성한 경우에는 원저자를 확인하여 수정·보완 척도로 분류하였다. 측정도구의 중복 사용은 2개 이하인 경우 합산하여 분류하였으나, 3개 이상의 원척도를 조합하여 사용한 경우와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척도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사용 빈도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비수치화 도구를 사용한 연구(김규리, 2023), 질적연구(김주영, 주은선, 2017; 박미정, 이에스더, 2023; 채송화, 2023), 척도 개발 연구(조은서, 김은영, 2018) 총 5편을 제외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분석에 더해, 연구자료 수집방법에 따른 분석을 추가하였다. 수집 자료의 성격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5) 연구주제 분석기준

연구주제는 먼저 전체 분석대상 128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주요 연구목적과 분석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는 관계변인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 척도 개발 연구, 집단 간 차이 분석 연구로 구분하였다. 관계변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와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는 학업스트레스의 예방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 척도 개발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거나 타당화한 연구로, 집단 간 차이 분석 연구는 성별, 학년 및 기타 집단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로 정의하였다.

이후 관계변인 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연구모형에서 어떠한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학업스트레스의 구조적 역할은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차이검증이나 단순 상관관계만을 다룬 연구는 관계변인의 구조적 역할을 분석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Creswell, 2014; Cohen et al., 2018), 연구모형에서 변인 간 영향관계 또는 인과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회귀분석, 경로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등으로 검증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 21편, 척도 개발 연구 1편(조은서, 김은영, 2018), 집단 간 차이 분석 연구 2편(이운경, 김민주, 2019; 류리라 외, 2021)은 전체 연구주제 분포에는 포함하되, 변인 간 관계를 전제로 한 구조적 역할 및 관계 변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관계변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의 네 가지 구조적 역할에 따라 함께 연구된 변인을 분석하였다. 관련 변인의 분류 기준은 선혜연과 오정희(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개인 내 요인과 환경요인 분류를 활용하였다. 개인 내 요인은 아동의 심리, 정서, 인지와 관련된 변인으로 개념화하였고, 환경요인은 아동을 둘러싼 부모, 학교, 또래관계, 사교육 또는 미디어, 사회적·교육적 맥락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환경요인은 다시 부모요인과 학교·기타요인으로 세분화하였다. 반면, 한 변인이 개인 내 요인과 환경요인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 각 연구에서 해당 변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했는지를 우선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선혜연과 오정희(2014)는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근거해 개인 내 요인으로 '공격성', '문제행동', '신체화', '학교폭력가해행동', '인터넷 사용', '학업성취'를 포함시켰지만, 본 연구는 '공격성', '내·외현화 문제행동', '신체화 증상', '미디어 중독'은 개인의 고유한 기질이라기보다 학교·기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판단되어 학교·기타요인으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분류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이론적·경험적 근거에 기초한다. 먼저 '공격성'은 관찰자의 관점에서 행동적 요인과 사회적 판단, 문화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격 의도와 관찰 가능한 행동, 사회적 가치 등에 근거해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판단되는 개념으로 보았다(Bandura, 1983, 정소이, 2019에서 재인용). 또한 김현실(2003)은 공격성의 형성에 기

질, 성격 및 정서적 요인, 인지적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 학교 환경 및 또래 집단 요인, 주변 인물 및 대중매체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 '내·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면서 겪는 다양한 환경적인 적응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으로, 문제행동의 발생 원인을 생물학적 관점, 정신분석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이귀숙, 2008). '신체화 증상'은 기질적으로 병리적 소견의 근거가 없는 다수의 신체적 증상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Hunter, 1979, 박희정, 2015에서 재인용). '학업성취'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보다 학업성적 등의 결과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미래의 사회적 지위와 성공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지표로 여겨진다(구경호, 김석우, 2014). 이 중, 학업성취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지니는데,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성취가 단순한 지식 탐구를 넘어 가족에게 명예와 명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도 이해된다(Chyu & Chen, 2022)는 점에서 학업수행의 결과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개인 내 요인과 구분하여 기타 학업 관련 결과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미디어 중독'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자아존중감, 부모 감독이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 아닌 학업스트레스 등을 분출할 환경적 결핍의 결과물로서 해석할 수 있다(김내영, 2024).

3. 분석 절차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학 전공 석·박사과정생 4명이 동일한 분석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논문을 분류한 후 연구자 간 교차검토를 실시하였다.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산출하였다. 즉, Holsti(1969)의 공식을 활용하여 코더 간 모든 조합의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연도 1.00, 연구분야 .84, 연구대상 .91, 연구방법 .93, 연구주제 .99, 변인 분류 .92로 나타났다. 이는 내용분석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되는 .80 이상의 기준(Neuendorf, 2002)을 충족한다. 이후 복수코딩이 가능한 항목과 같이 분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해 세부 분류기준을 보완한 후 재분석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한편, 연구주제 분석 과정에서는 세부 변인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한 교정작업을 실시하였다. 띄어쓰기 및 표기 방식의 차이로 인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학교적응'과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적응'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변인별 빈도 분석을 위해 유사한 개념은 상위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사교육 과목, 사교육 시간, 사교육 비용, 사교육 개수, 사교육 부담감, 선택 주체, 학원 및 과외 수 등은 '사교육'으로 통합하였으며,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행복감·삶의 만족도'로 통합하였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의 발표연도, 연구분야,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았고,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의 구조적 역할과 관계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도별 게재논문 수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관련 논문 총 128편의 연도별 발표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매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연도별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16편(12.5%)이 게재되어 전년 대비 60.0%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8편(6.3%)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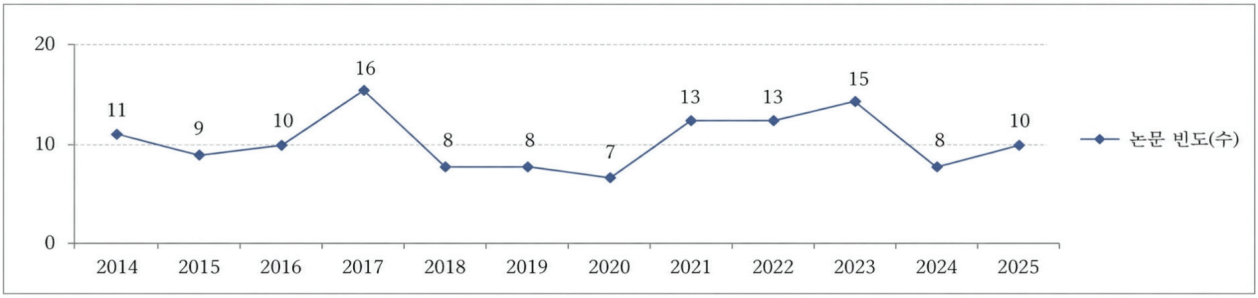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논문 수 (편)

표 2. 연구분야별 학술지 논문 및 학위논문의 빈도와 비율

연구 분야	교육학	상담학	아동・가족학	기타	빈도(%)
학술지	35(27.3)	10(7.8)	3(2.3)	30(23.4)	78(60.9)
학위논문	21(16.4)	19(14.8)	3(2.3)	7(5.5)	50(39.1)
총계(%)	56(43.8)	29(22.7)	6(4.7)	37(28.9)	128(100)

주. 백분율의 소수점 반올림 과정으로 인해 세부 분야별 총합이 100.0과 일치하지 않음.

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5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는 13편(10.2%)이 게재되어 2020년 대비 85.7%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8편(6.3%)으로 전년 대비 46.7% 감소하였다.

2. 연구분야별 분포

연구분야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표 2), 전체 128편의 연구 중 학술지 논문이 78편(60.9%), 학위논문이 50편(39.1%)이었다. 학위논문 중에서는 석사학위논문이 49편(9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술지 논문의 연구분야는 교육학이 35편(2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분야가 30편(23.4%)이었다. 학위논문의 경우 교육학이 21편(16.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상담학이 19편(14.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분석대상 논문 중 기타 분야로 분류된 연구들의 경우, 사회복지학이 12편(9.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예술학・미술학・체육학, 사회과학, 학제 간 연구 분야가 각각 6편(4.7%)으로 동일한 비율을 차지했고, 이 외 공학 3편(2.3%), 정신의학 2편(1.6%), 산림치유학 1편(0.8%), 미디어학 1편(0.8%)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3. 연구대상별 분포

연구대상의 학년 분포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단일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 2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년 혼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6학년을 함께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경우가 30.5%로 가장 많았다. 기타 연구대상은 총 8편(6.3%)으로 2학년, 3학년, 4~5학년, 1~6학년, 3학년과 6학년, 3~4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등이 포함되었다.

4. 연구방법 분석 결과

1) 측정도구의 사용분포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한 도구의 종류와 사용빈도는 <표 4>와 같다. 측정도구의 중복 사용은 2개 이하인 경우 합산하여 분류하였으나, 3개 이상의 원척도를 조합하여 사용한 경우와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척도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척도의 총계가 총 논문의 수와 상이하다. 가장 많이 사용된 측정도구는 기타 유형으로 총 62편(47.3%)이 해당되었다. 기타 유형 중 47편(35.9%)은 한국아동패널 등의 패널자료에서 학업스트레스 문항을 활용한 연구였으며, 15편(11.5%)은 연구자가 기존 문항을 재구성하거나 별도의 설문지를 사용한 연구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오미향과 천성문(1994)의 학업스트레스 설문지가 28편(21.4%), 조붕환(2006)의 초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척도가 26편(19.8%)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연구자가 기존 문항을 재구성하거나 별도의 설문지를 사용한 15편의 연구를 살펴보면, 조은서와 김은영(2018)의 척도가 7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기타 3편, 한미현

표 3. 연구 대상의 학년별 논문의 빈도와 비율

학년		빈도(%)
단일학년	4	16(12.5)
	5	15(11.7)
	6	26(20.3)
학년혼재	5~6	39(30.5)
	4~6	22(17.2)
	3~6	2(1.6)
기타		8(6.3)
총계		128(100.0)

표 4.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도구의 빈도와 비율

척도명	원자료빈도(%)	수정・보완 빈도(%)
오미향, 천성문(1994)의 학업스트레스 설문지	3(2.3)	25(19.1)
조붕환(2006)의 초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척도	13(9.9)	13(9.9)
민하영, 유안진(1998)의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 척도	2(1.5)	13(9.9)
기타	62(47.3)	
총계	131(99.9)	

주. 백분율의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절사로 인해 총합이 100.0이 되지 않음.

과 유안진(1995)의 척도 2편, 박병기와 박선미(2012)의 척도 2편, 김동원(2008)의 척도 1편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된 설문지 척도의 총 사용 빈도는 기타 3편을 포함하여 84편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롭게 개발된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조은서와 김은영(2018)의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자료의 수집방법과 연구설계

연구자료의 수집방법에 따라 분류한 결과, 1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81편(63.3%),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47편(36.7%)으로 나타났다. 1차 자료 연구는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2차 자료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SKC),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등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 중, 45편(95.7%)은 특정 시점의 자료를 분석한 횡단연구였으며 종단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2편(4.3%)에 불과하였다.

5. 연구주제 분석 결과

1) 학업스트레스 변인의 구조적 역할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관련 연구 128편의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관계변인 연구가 104편(81.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연구가 21편(16.4%), 집단 간 차이 분석 연구가 2편(1.6%), 척도 개발 연구가 1편(0.8%)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는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학업스트레스 변인의 구조적 역할과 관계 변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계변인 연구 104편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학업스트레스 변인의 집계는 각 연구 내 변수의 출현 건수에 따라 중복하여 합산하였다. 학업스트레스가 연구모형 내에서 어떠한 구조적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

표 5. 연구주제별 분포

연구주제	빈도(%)
관계변인 연구	104(81.3)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1(16.4)
척도 개발	1(0.8)
집단 간 차이 분석	2(1.6)
총계	128(100.0)

주. 백분율의 소수점 반올림 과정으로 인해 총계가 100.0과 일치하지 않음.

표 6. 변인 분류에 따른 빈도와 비율

변인 분류	빈도(%)
독립변인	37(35.6)
종속변인	32(30.8)
매개변인	31(29.8)
조절변인	4(3.8)
총계	104(100.0)

표 7. 독립변인 연구 주제별 빈도와 비율

구분	요인 분류		내용(빈도)	빈도(%)	
종속변인	개인 내적 요인		소진(5), 행복감 · 삶의 만족도(3), 학습동기(2), 자아존중감(1), 자아정체감(1), 학업열의(1), 정서지능(1), 학습된 무기력(1), 신체화 증상(1), 우울(1)	17 (45.9)	37 (100)
	환경요인		학교적응(6), 내 · 외현화 문제행동(4), 미디어 중독(4), 공격성(3), 학업성취(1), 학업수행능력(1), 안전생활 실천행동(1)	20 (54.1)	
매개변인	개인 내적 요인		학업탄력성(3), 그릿(3), 집행기능곤란(2), 정서조절(2), 자아탄력성(2), 자기통제(2), 우울(2), 자아존중감(1), 자기자비(1), 학습된 무기력(1), 불안(1), 회복탄력성(1), 완벽주의(1), 대처반응(1)	23 (79.3)	29 (100)
	환경요인		미디어 중독(2), 학교적응(1), 또래애착(1), 교사-학생 관계(1), 공동체의식(1)	6 (20.7)	
조절변인	개인 내적 요인		자아존중감(2), 성격강점(1), 성격특성(1), 그릿(1), 적응유연성(1), 정의민감성(1)	7 (63.6)	11 (100)
	환경요인	부모요인	모의 학업성취압력(1), 부모 양육행동(1), 부모 애착(1)	3 (27.3)	
		학교 · 기타요인	사회적지지(1)	1 (9.1)	

립변인으로 연구된 논문이 37편(35.6%), 종속변인 연구 32편(30.8%), 매개변인 연구 31편(29.8%), 조절변인 연구 4편(3.8%)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인 유형별 관계 변인

연구의 주제분석 중 두 번째 분석으로, 각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를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으로 활용할 때 해당 변인과 함께 분석된 관계 변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계 변인은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요인(부모요인, 학교 · 기타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학업스트레스가 독립변인의 역할을 한 경우(표 7), 함께 연구된 종속변인은 개인 내적 요인(45.9%)과 환경요인(54.1%) 연구가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학교적응(16.2%), 소진(13.5%), 내 · 외현화 문제행동(10.8%), 미디어 중독(10.8%) 순으로 연구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와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개인 내적 요인 연구가 79.3%로 환경요인 연구(20.7%)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개인 내적 요인에서는 학업탄력성(10.3%), 그릿(10.3%) 등이 주로 연구되었으며, 환경요인에서는 미디어 중독(6.9%), 학교적응(3.4%)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함께 연구된 조절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부모 양육행동 등이 있었으며,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요인 영역에서 비교적 균형있게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업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설계한 경우(표 8), 함께 연구된 관계 변인 중 독립변인은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가 80.5%로 개인 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19.5%)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사교육(24.4%),

표 8. 종속변인 연구 주제별 빈도와 비율

구분	요인 분류		내용(빈도)	빈도(%)	
독립변인	개인 내적 요인		자아탄력성(1), 감성지능(1), 자아상태(1), 커뮤니케이션 능력(1), 삶의 만족도(1), 신체적 자기개념(1), 자기통제(1), 그릿(1)	8 (19.5)	41 (100)
	환경요인	부모요인	학업성취압력(5), 학습관여(5), 양육태도(4), 모 애착(1), 모의 주관적 행복감(1)	16 (39)	
		학교 · 기타요인	사교육(10), 체육활동(2), 하루 평균 공부시간(1), 중간놀이(1), 1인 1악기 교육 관련 배경변인(1), 학교적응(1), 사회적지지(1)	17 (41.5)	
매개변인	개인 내적 요인		자아탄력성(2), 학업적 자아개념(2), 내현적 자기애(2), 자기효능감(2), 자기결정성 동기(1), 가치(1), 학습동기(1), 통제(1), 마음챙김(1), 역기능적 완벽주의(1), 행복감(1)	15 (78.9)	19 (100)
	환경요인		모 양육태도(1), 모 애착(1), 학업수행능력(1), 모의 학업성취압력(1)	4 (21.1)	
조절변인	개인 내적 요인		진로성숙도(1), 자아존중감(1), 역기능적 완벽주의(1)	3 (100)	3 (100)

표 9. 매개변인 연구 주제별 빈도와 비율

구분	요인 분류		내용(빈도)	빈도(%)	
독립변인	개인 내적 요인		자아존중감(2), 성실성(1), 자기효능감(1), 외로움(1), 신체자아상(1), 그릿(1), 스포츠참여에 따른 자아탄력성(1)	8 (25.8)	31 (100)
	환경요인	부모 요인	학업성취압력(11), 부모-자녀 관계(5), 부모 양육행동(2), 모 양육스트레스(2)	20 (64.5)	
		학교・기타 요인	창의적 학교 환경(1), 뉴스포츠 참여만족도(1), 미디어 중독(1)	3 (9.7)	
종속변인	개인 내적 요인		행복감・삶의 만족도(11), 그릿(1), 자기효능감(1), 학습된 무기력(1), 진로성숙도(1), 우울(1)	16 (50)	32 (100)
	환경요인		학교적응(10), 미디어 중독(2), 외현화 문제행동(2), 교우관계(1), 학업성취(1)	16 (50)	
조절변인	개인 내적 요인		그릿(1), 삶의 만족도(1), 자아탄력성(1), 실패내성(1)	4 (66.7)	6 (100)
	환경요인		부 양육스트레스(1), 부모의 정서적 지원(1)	2 (33.3)	

부모의 학업성취압력(12.2%), 부모의 학습관여(12.2%)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독립변인과 학업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는 개인 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78.9%로 환경요인(21.1%)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세부 변인으로는 자아탄력성(10.5%), 학업적 자아개념(10.5%), 내현적 자기애(10.5%), 자기효능감(10.5%) 순으로 나타났다. 함께 연구된 조절변인은 개인 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만 확인되었으며, 진로성숙도(33.3%), 역기능적 완벽주의(33.3%), 자아존중감(33.3%)이 각각 동일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셋째, <표 9>는 학업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이었을 때 함께 연구된 관계 변인을 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이 환경요인인 연구가 74.2%로 개인 내적 요인 연구(25.8%)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35.5%), 부모-자녀 관계(16.1%), 부모 양육행동(6.5%)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종속변인으로는 개인 내적 요인(50%)과 환경요인(50%)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세부 변인으로는 행복감・삶의 만족도(34.4%), 학교적응(31.3%), 미디어 중독(6.3%)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함께 연구된 조절변인은 개인 내적 요인(66.7%)이 환경요인(33.3%)보다 높았으며, 그릿, 자아탄력성, 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각각 16.7%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조절변인으로 설계된 경우를 분석하였다(표 10). 그 결과, 독립변인으로 환경요인이 75%, 개인 내적 요인이 2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내사된 조절동기, 학습지원, 학교 환경, 게임 몰입경험과 관련된 연구가 25%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으로는 개인 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와 환경요인의 연구가 각각 50%로 동일했으며, 세부 변인으로는 집행기능, 학업수행력 등과 관련된 연구가 각각 25%로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졌다. 매개변인은 개인 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만 이루어졌으며 그

표 10. 조절변인 연구 주제별 빈도와 비율

구분	요인 분류		내용(빈도)	빈도(%)	
독립변인	개인 내적 요인		내사된 조절동기(1)	1(25)	4(100)
	환경요인	부모요인	학습지원(1)	1(25)	
		학교・기타요인	학교 환경(1), 게임 몰입경험(1)	2(50)	
종속변인	개인 내적 요인		집행기능(1), 긍정심리자본(1)	2(50)	4(100)
	환경요인		학업수행력(1), 미디어 중독(1)	2(50)	
매개변인	개인 내적 요인		그릿(1), 학습태도(1)	2(100)	2(100)

릿(50%)과 학습태도(50%)가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관련 논문 128편을 대상으로 발표연도, 연구분야,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최근 12년간 꾸준히 축적되어왔다. 학업스트레스는 특정 사회적 사건에 한정된 주제가 아닌 아동의 발달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연구주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연도별 분포에서 일부 시점의 증감이 확인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수행평가 확대 등의 교육환경 변화, 코로나19 전후의 학습환경 변화, 디지털 학습환경의 확대, 사교육 부담 등은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연구에서 고려할 교육·환경적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만으로 이러한 교육·사회적 변화가 연구의 수나 연구주제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학업스트레스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발달과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되고 있는 중요한 학문적 주제라는 점에서,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며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교육학 분야의 편중은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주로 학업 수행과 학교생활이라는 교육적 맥락에서 개념화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관계변인 분석 시, 부모 관련 변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만큼 학업스트레스는 아동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기대와 상호작용, 가정의 학습환경 등 다양한 관계적 맥락 속에서 경험될 수 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를 교육적 관점만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아동·가족학 분야에서 아동의 발달적 측면과 부모-자녀 관계 및 가족체계적 맥락을 보다 심층적으로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가 사회복지학, 예술학·미술학·체육학, 사회과학, 학제 간 연구 분야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은 학업스트레스가 교육적 차원을 넘어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향후에는 교육적 요인뿐 아니라 아동의 개인적 특성, 가족환경 및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학제 간 접근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체 학위논문 중 박사학위논문의 연구는 미미하였다. 박사학위논문은 일반적으로 심층적인 연구설계와 이론적 검증을 수행하므로, 향후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종단연구, 개입연구 및 이론모형 검증 등이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보다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대상은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중학교 진학과 학업 경쟁에 대한 부담을 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기라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고학년 아동은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인지적·언어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여, 연구 수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학습 습관과 학교적응이 형성되는 중요한 발달 시기이며(Ricciardi et al., 2021), 이 시기의 학업스트레스 경험은 이후 학업적·정서적 적응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최근 학업 경쟁과 사교육 과열이 초등학교 이전 시기까지 확대되고 있는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홍세희, 노언경, 2017),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관심과 연구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저학년 아동은 자신의 스트레스 경험을 정확하게 언어화하거나 자기보고식 설문에 응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아동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자료를 보완하기 위한 객관적 측정 방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Dimolareva et al.(2018)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환경에서 타액 코르티솔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비침습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영아의 누적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머리카락 코르티솔을 활용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송지나, 이순형, 2016). 이러한 접근은 자기보고식 설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저연령 아동의 스트레스 경험을 단일 측정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부모 보고 및 행동 관찰 자료와 함께 생리적 지표를 활용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Creswell, 2014)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 보고나 교사 보고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활용하고 저학년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학업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측정도구의 사용 양상에서는 1차 척도의 활용이 여전히 많았으나, 수정·보완 척도와 2차 자료 기반 분석도 일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연구목적에 맞추어 기존 척도의 적용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디지털

학습환경, 사교육 경험,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타당화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연구자마다 학업스트레스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업스트레스의 다차원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학업부담, 성취압력, 평가불안, 부모 및 사교육 관련 스트레스 등 다양한 하위요인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측정체계가 요구된다.

한편,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변인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적연구와 횡단연구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종단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횡단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변인 간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학업스트레스의 변화 과정과 발달적 특성, 선행요인과 결과 간의 시간적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Menard, 2002). 따라서 향후에는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년의 변화와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부모·학교·개인 요인이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아동패널이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과 같은 패널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장기 추적연구를 확대함으로써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의 발달적 변화와 인과적 경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주제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128편 중 관계 변인 연구가 104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고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학업스트레스 연구의 주요 관심사임을 의미하며, 동시에 아직까지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축적되는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한편,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변인 연구를 중심으로 주제를 분석하였기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의 핵심 보호요인으로 고려되는 자아탄력성, 학업탄력성, 자기효능감 등을 기반으로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의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 변인의 구조적 역할을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의 네 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하여 분석하였다. 선혜연과 오정희(2014)의 기존 동향연구에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중심의 관계 탐색이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에서는 매개·조절효과를 포함하여 보다 명확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단선적 관계가 아닌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분석의 흐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학업스트레스가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연구에서는 학교적응, 소진, 내·외현화 문제행동, 미디어 중독 등이 주요 종속변인으로 함께 연구되었다. 그릿, 학업탄력성, 자아탄력성, 정서조절 등은 이들 간의 관계에서 주요 매개변인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 부모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등은 학업스트레스의 영향을 완충하는 조절변인으로 접근되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학업스트레스가 단순히 학업 영역에 한정된 주제가 아니라 아동의 학교생활 및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릿과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 등이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반복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은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개인 내적 특성이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개인 내적 자원과 긍정적 심리특성은 학업스트레스가 부정적 학교적응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완충하는 핵심 보호요인으로 주로 논의되어 왔다. 한편 학업스트레스와 함께 연구된 원인변인으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등이 있었다. 특히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아동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학업기준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자기비판과 학업 수행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자기의심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Chyu & Chen, 2022). 이는 가정과 학교가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자기조절 능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아동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의 정도가 매우 높을 때에는 학교소속감, 교사연결, 또래지지, 가족지지 등 사회적 연결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Jasińska-Maciążek et al., 2025)도 감안해야 한다. 이는 일정 수준을 초과한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보호요인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학업스트레스 자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선제적 개입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연구의 경우, 사교육,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부모의 학습관여와 같은 환경요인이 주요 독립변인으로 연구되었다. 이는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가정과 학교, 사교육 환경 등 외부 환경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내현적 자기애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 학업스트레스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의 학업스트레스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개입과 함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아개념, 자기효능감과 같은 아동의 개인 내적요인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습관여가 주요 환경요인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가 성취 중심의 관여를 넘어 아동과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해야 함을 뜻하며,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업적 자아개념을 증진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학업스트레스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한 경우에는 부모의 학업성취압력, 부모-자녀 관계, 모 양육스트레스 등이 주요 독립변인으로 연구되었고, 행복감·삶의 만족도, 학교적응 등이 주요 종속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선행요인과 결과 간의 직접적인 관계만을 탐색하는 것을 넘어,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업스트레스의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를 단순히 감소시켜야 할 부정적 경험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적 요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이 학업 관련 요구와 부담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한 경우에는 내사된 조절동기, 학교 환경, 부모의 학습지원 등이 원인변인으로 연구되었고, 결과변인으로는 학업수행력, 집행기능, 긍정심리자본 등이 확인되었다. 이때 원인과 결과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그릿과 학습태도가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가 조절변인으로 설정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은 지금까지의 연구가 학업스트레스를 주로 원인이나 결과변인으로 이해하는 데 집중되어왔음을 의미한다. 한편, 학업스트레스는 동일한 수준의 개인적·환경적 자원 속에서 아동의 개인 차에 따라 아동의 학습 및 심리·사회적 적응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 차에 따른 아동의 학습 및 심리·사회적 적응 양상을 고려하여, 학업스트레스의 조절적 역할을 검토하는 접근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단순한 원인변인이나 결과변인이 아니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적 변인임을 보여줄 것이다. 즉, 학업스트레스의 구조적 역할과 작동기제를 보다 정교하게 규명함으로써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의 수준이 개인 및 환경 요인과 적응 간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학업스트레스의 기능을 다각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분석대상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검색엔진의 범위에서 제외된 연구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외 연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의 국제적 동향과 비교·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동향 분석의 특성상 변인 분류와 해석의 기준을 명시하여 분석하였으나, 선행연구마다 연구목적과 변인 정의가 상이하여 동일한 변인이라도 연구에 따라 기능적 역할이 다소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개념의 변인인 경우에도 각 연구에서 해당 변인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변인들과의 관계로 접근하였는지에 따라 분류결과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연구자의 분석기준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선행연구의 결과와 단순 비교를 통해 변화 양상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이므로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 간 관계의 효과크기나 인과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특정 변인이 매개 또는 조절변인으로 반복적으로 보고된 결과를 통해 해당 변인이 보호요인 또는 위험요인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단정짓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와 영향력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하고,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인 간 인과적 경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개별 변인이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관계 변인을 통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의 구조적 역할을 독립변인, 종속변인, 매개변인 및 조절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단선적 관계가 아닌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는 학업스트레스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작동 기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향후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학업스트레스 예방 및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강정애(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갈등적 친구관계 및 심리적 불안감과 문제행동의 구조관계: 성별 및 학교급별의 다집단 분석**.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부(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62381&lev=0&m=0302에서 인출.

구경호, 김석우(2014).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탄력성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69-89.

구은실(2020). **초등학생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스트레스,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동기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다영(2025). 초등학생의 평가 스트레스와 학업 소진 간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10), 567-577. https://doi.org/10.22251/jlcci.2025.25.10.568

김규리(2023). **서울 강남지역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위한 미술치료 질적 사례연구**.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나영, 손윤희(2019). 방학분산제 실시가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혁신연구*, *29*(1), 257-277. http://doi.org/10.21024/pnuedi.29.1.201903.257

김내영(2024). **아동의 행복감과 학업 스트레스가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를 통해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원(2008). **중학생을 위한 학업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학업스트레스와 학업동기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모여(2015). **초등학생의 학습유형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업적응의 차이.**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주, 이동귀(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1), 69-89. https://doi.org/10.16983/kjsp.2018.15.1.69

김연정(2018). **부모학업성취압력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 학업정서의 매개효과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경(2022).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그릿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성취압력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11), 462-477. https://doi.org/10.5762/KAIS.2022.23.11.462

김원주(2017).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2018). **스토리텔링 미술교육이 청각장애학생의 학습태도, 자아정체감,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주영, 주은선(2017). 초등학교 6학년의 학업스트레스 및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포커싱 집단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56*(1), 275-303. https://doi.org/10.22418/JSS.2017.06.56.1.275

김지수(2020).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메타분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실(2003). 청소년기의 공격성: 기여 요인 및 관련 이론. *청소년행동연구*, *8*, 1-28.

김혜진(2017).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이 지각한 학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학생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리라, 송주연, 이우걸(2021).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조절 전략 사용 잠재프로파일분석: 자율동기의 예측력과 학업에 대한 영향력 검증. *교육심리연구*, *35*(2), 343-363. https://doi.org/10.17286/KJEP.2021.35.2.05

민하영(2016). 학령기 아동의 자기통제와 학업 스트레스 간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5*(4), 399-408. https://doi.org/10.5934/kjhe.2016.25.4.399

민하영, 유안진(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아동학회*, 77-96.

박미정, 이에스더(2023). 초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완화와 탄력성 증진을 위한 비대면 플랫폼 활용 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적용방안 탐색. *예술교육연구*, *21*(2), 271-286. https://doi.org/10.23317/kaae.2023.21.2.016

박병기, 박선미(2012).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6*(2), 563-585.

박희정(2015). **학령 후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반해륜(2024). **어머니의 양육방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스트레스 및 방과후 학교 만족도 간의 구조관계**.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은라, 이주연, 오유진(2023). 중도입국자녀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8*(4), 647-669. https://doi.org/10.13049/kfwa.2023.28.4.10

선혜연, 오정희(2014). 초등학생 학업스트레스 연구동향. *교육논총*, *34*(2), 71-89.

성경환, 유재봉(2023). 초등학생의 사교육이 또래관계 및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6), 787-799.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6.787

성정혜, 허무녕(2024).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아동의 인성과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분류 및 전이 영향. *육아정책연구*, *18*(1), 61-85. https://doi.org/10.5718/kcep.2024.18.1.61

손승희, 정지나(2021).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30*(5), 761-770. https://doi.org/10.5934/kjhe.2021.30.5.761

송지나, 이순형(2016). 영아의 기질과 누적 코티솔 수준의 관계: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 *아동학회지*, *37*(3), 1-12. https://doi.org/10.5723/kjcs.2016.37.3.1

신지연, 권순구, 봉미미(2016). 부모의 지원, 성취압력과 초등학생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학습동기 변인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28*(3), 497-520. http://doi.org/10.17927/tkjems.2016.28.3.497

안종혁, 유미현(2014).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소진 비교 및 관계 분석. *영재교육연구*, *24*(2), 169-189. https://doi.org/10.9722/JGTE.2014.24.2.169

염유식, 성기호(2021). 2021 제12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https://kossda.snu.ac.kr/bitstream/20.500.12236/25322/4/kor_report_20210010.pdf에서 인출

오립군(2024). **중국 쌍감정책 하 음악 방과 후 수업에서 초등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세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미향, 천성문(199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요인 및 증상 분석과 그 감소를 위한 명상훈련의 효과. *인간이해*, *15*, 63-96.

유민상, 이경상, 서고운, 유성렬, 유설희(2025).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nypi.re.kr/repository/handle/2022.oak/6587에서 인출

이귀숙(2008). **학령초기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과정 및 발달유형의 단기 종단적 탐색.**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동욱(2022).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어머니 애착, 자아탄력성과의 영향관계 탐색. *문화와융합*, *44*(10), 593-606. https://doi.org/10.33645/cnc.2022.10.44.10.593

이동욱(2025).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행복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분석: 학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사회과학리뷰*, *10*(4), 1-41. https://doi.org/10.48033/jss.10.4.1

이민희(2022).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6*(1), 19-35. http://doi.org/10.21459/kccr.2022.26.1.19

이뿐새(2017). 부모의 교육 참여가 자녀의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도를 통한 주관적 행복의 매개된 조절효과. *학교사회복지*, *37*, 147-177.

이승도, 고태주, 신명건(2015). 초등학생 태권도 참여동기가 학업성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9*(3), 137-146.

이운경, 김민주(201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부모,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유형: 정신건강, 학업스트레스,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40*(3), 105-121. https://doi.org/10.5723/kjcs.2019.40.3.105

이유미(2019).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의 종단적 관계 분석**.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의빈, 김진원, 김소연(2023). 부모의 성취압력 및 학습관여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34*(4), 87-113. https://doi.org/10.14816/sky.2023.34.4.87

임효진(2022). 그릿이 매개하는 학교환경과 초등학생 집행기능의 관계에서 학업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초등교육*, *33*(4), 249-264. https://doi.org/10.20972/Kjee.33.4.202212.249

정소이(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신체화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감정표현 불능증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유지, 김지현, 이은주(2022). 자기결정성동기 잠재프로파일에 대한 사회적 관계 변인의 예측효과와 학업・정서적 적응의 차이: 저성취 집단과 고성취 집단의 비교. *한국교육문제연구*, *40*(3), 175-198. http://doi.org/10.22327/kei.2022.40.3.175

조붕환(2006). 초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아동교육*, *15*(3), 5-21.

조성진(2025). 국내 코칭 리더십 연구, 이대로 좋은가?: 동향 분석(2003-2025)과 발전을 위한 과제. *혁신기업연구*, *10*(4), 157-187. http://doi.org/10.37297/IER.2025.12.10.4.157

조우미(2017).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2*(2), 1-12. https://doi.org/10.23931/kacp.2017.12.2.01

조은서, 김은영(2018). 학업스트레스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학연구*, *25*(6), 135-167. https://doi.org/10.21509/KJYS.2018.06.25.6.135

조은혜(2016).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내 외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교사-학생 관계의 매개**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명원, 이주연(2022).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학업수행능력과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복지연구*, *20*(2), 1-16. https://doi.org/10.35639/daehan.2022.20.2.1

채담미(2019). **자아개념이 학업 스트레스를 매개로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자아개념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송화(2023).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촉진을 위한 상담실행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소연, 최정현(2021). 초등학생 탄산음료 섭취와 행동특성과의 관련성: -제 11차 한국아동패널을 중심으로-. *차문화산업학*, *54*, 141-165.

최정은, 김은하(2017).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 학업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5-216.

최정은, 김은하(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 학업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4*(1), 323-334. https://doi.org/10.21097/ksw.2019.02.14.1.339

한미현, 유안진(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한은수(2022).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 중독, 공동체의식, 학교적응 간의 구조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9*(3), 299-318. https://doi.org/10.21509/KJYS.2022.03.29.3.299

한희진(2023).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2), 517-531.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22.517

홍세희, 노언경(2017). 유아 사교육 시작 시점의 결정요인과 시작 시점이 이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검증: 혼합생존분석의 확장. *유아교육연구*, *37*(3), 53-72.

홍예지(2023).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성취압력의 변화 유형과 심리・정서적 및 인지적 특성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44*(3), 279-291. https://doi.org/10.5723/kjcs.2023.44.3.279

Cheng, X., & Lin, H. (2023). Mechanisms from academic stress to subjective well-being of Chinese adolescents: The roles of academic burnout and internet addiction.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6*, 4183-4196. https://doi.org/10.2147/PRBM.S423336

Chyu, E. P. Y., & Chen, J.-K. (2022). The correlates of academic stress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7), 4009. https://doi.org/10.3390/ijerph19074009

Cohen, L., Manion, L., & Morrison, K. (2018).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8th ed). London: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1315456539

Creswell, J. W. (201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4th ed). CA: Sage Publications.

Dimolareva, M., Gee, N. R., Pfeffer, K., Maréchal, L., Pennington, K., & Meints, K. (2018). Measuring cortisol in the classroom with school-aged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5*(5), 1025. https://doi.org/10.3390/ijerph15051025

Erikson, E. H. (199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rev. and enl.).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Holsti, O. R.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eading, MA: Addison-Wesley.

Jasińska-Maciążek, A., Opozda-Suder, S., Grygiel, P., Gajda, M., & Dolata, R. (202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hool Environment Stress Questionnaire (SESQ): Measuring academic-, teacher-, and peer-related stress in primary school students. *Assessment*, *33*(4), 571-589. https://doi.org/10.1177/10731911251350565

Leung, G. S. M., Yeung, K. C., & Wong, D. F. K. (2010). Academic stressors and anxiety in children: The role of paternal suppor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9*(1), 90-100. https://doi.org/10.1007/s10826-009-9288-4

Menard, S. (2002). *Longitudinal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Neuendorf, K. A. (2002).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Rees, G., Savahl, S., Lee, B. J., & Casas, F. (Eds.). (2020). Children's views on their lives and well-being in 35 countries: A report on the Children's Worlds project, 2016-19. Children's Worlds Project (ISCWeB).

Ricciardi, C., Manfra, L., Hartman, S., Bleiker, C., Dinehart, L., & Winsler, A. (2021). School readiness skills at age four predict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fifth grad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7*, 110-120. https://doi.org/10.1016/j.ecresq.2021.05.006

Vanluydt, E., Delespaul, P., Putrik, P., van Amelsvoort, T., Levels, M., & Huijts, T. (2026). Understanding academic pressure in primary school: Associations with mental health and social connectednes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177/02724316261446598

Wilks, S. E. (2008). Resilience amid academic stress: The moderating impact of social support among social work students. *Advances in Social Work, 9*(2), 106-125. https://doi.org/10.18060/51

Xu, J., Wang, H., Liu, S., Hale, M. E., Weng, X., Ahemaitijiang, N., … Han, Z. R. (2023). Relations among family, peer, and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in Chinese adolescents: A daily diary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59*(7), 1346-1358. https://doi.org/10.1037/dev0001538

Zhu, X., Haegele, J. A., Liu, H., & Yu, F. (2021). Academic stress, physical activity, sleep, and mental health among Chinese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4), 7257. https://doi.org/10.3390/ijerph18147257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research trends in academic stres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and synthesized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tress and related variables. A total of 128 journal articles and dissertations published between 2014 and 2025 were analyzed by publication year, research field, participants, methodology, and research topics. Research on academic stress was conducted steadily over the 12-year period, with education accounting for the largest proportion. Most studies focused on upper-grade students, while lower-grade students were underrepresented. Questionnaires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measurement tool, with modified or supplemented versions used more often than original scales. Primary data were more common than secondary data, and cross-sectional designs predominated, with few longitudinal studies. Studies examining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comprised the largest research topic. Academic stress was most frequently examin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Major related variables included school adjustment, academic burnout, problem behaviors, media addiction, private tutoring, parental academic pressure, parent–child relationships,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Academic resilience, self-efficacy, academic self-concept, grit, and ego resilience were frequently examined as mediating or moderating variables. These findings highlight growing attention to underlying mechanisms and protective factors and provid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interventions.

▲Keywords : academic stress,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earch trends